동남아시아연구 33권 3호(2023) : 187～192
DOI : 10.21652/kaseas.33.3.202308.187

<서평>

25년에 걸친 트랜스내셔널 한인 공동체에 대한 역작

김지훈, 『싱가포르 한인사회: 글로벌 한인, 트랜스내셔널 한인 공동체』, 서울: 나남, 2023.

김 종 영*

김지훈 교수는 트랜스내셔널 연구와 이민 연구에 찬란한 이정표를 세웠다. 대학원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수에 이르기까지 25년에 걸친 싱가포르 한인사회 연구는 동료 연구자들과 후학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전범이자 역작이다. 비행기 안에서 보내었던 무수히 많은 시간들, 수많은 인터뷰이(interviewee)를 찾기 위한 각고의 노력, 모든 인터뷰를 전사하는 고된 노동,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기울인 수많은 문헌 연구, 그리고 이 모두를 종합하려는 연구에의 의지. 트랜스내셔널 연구와 이민 연구에서 『싱가포르 한인사회』를 하나의 고전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동남아시아 이민 사회에 대한 종합적이며 인류학적이며 역사적인 관점을 동시에 잘 엮어서 제시한다. 김지훈은 '글로벌 한인'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는 한국인의 이동성, 역동성, 지리성을 잘 포착하는 개념이다.

*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jykim24@khu.ac.kr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무수히 많은 집단과 층위로 이루어진 복잡하고 중층적인 이민 사회다. 김지훈은 중산층 위주의 주재원 사회라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이민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싱가포르 한인사회를 철저하게 추적한다. 가령 4장에서 보여주듯 싱가포르 이민 초기에 정착한 사람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싱가포르 봉제공장과 전자공장에서 일했던 20대 초반의 한인 여성이었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발견이다. 독일로 건너간 광부와 간호사는 한국 현대사에서 꽤 알려진 사실이지만 싱가포르 공장에 취직한 여성들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이 힘들었지만 이들이 정착한 이유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것도 아닌 혼인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이 더욱 놀랍다. 싱가포르 공장에서 일한 한인 여성들은 한국으로 돌아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많은 경우 이혼했다. 가부장제가 엄격했던 1980년대 시부모들과 남편들은 이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외국물을 먹은 여자'라는 편견 때문에 이들의 정조는 의심받았다. 이혼을 결심한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과 싱가포르에서 배운 영어 덕분에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었다. 한국 사회의 글로벌화와 함께 이들은 영어학원 강사나 영어와 관련된 직종을 선택할 수 있어 이혼 후에도 자립할 수 있었다.

한국의 이러한 이혼 소식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도 전해졌고 이들은 싱가포르 남성들과 결혼하여 싱가포르에 정착한 초기 집단 중 하나였다. 젠더, 국가, 계급 사이에서 이들이 택한 인생 노정은 어떤 책이나 논문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다. 김지훈이 들려주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롭고 가슴 찡한 글로벌 한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싱가포르 한인사회를 특징짓는 것은 주재원 사회라는 점이다. 한국 기업들과 세계적 기업들이 아시아 거점으로 싱가포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파견된 주재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고 영어가 공용어이며 교육 시스템이 위계화 되어 있다. 주재원들에게 집과 교육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이며 이들 주요 요소에 의해서 이들의 인생 궤적이 변하는 것을 김지훈은 잘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철저한 자본주의 룰에 의해 지배되는 싱가포르 사회를 한편으로는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로 다른 한편으로 돈이 지배하는 비정한 사회로 묘사한다. 글로벌 금융기업에서 통용되는 '골드만삭스 룰'은 이 책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 룰은 매년 본인의 성과에 관계없이 하위 10%를 잘라내는 것으로서 싱가포르 금융 종사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자 이직의 주요 원인이다.

평자는『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이란 책에서 뉴욕의 월스트리트,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시카고의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분석한 바가 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싱가포르 금융가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점은 높은 연봉을 받되 이직률이 높고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두 지역 모두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해야 하는데 한인 전문가 집단은 상대적으로 언어 자본과 사회 자본이 약하다. 영어를 못하면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고 인맥을 넓히는데도 어렵다. 싱가포르 금융가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지훈의 책에서도 밝히듯이 "사내 정치를 포함한 네트워크 관리, 자기관리, 그리고 명확한 자기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에서 지적했듯이 한국 전문가 집단은 착함·성실·겸손 아

비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 회사가 요구하는 인성 자본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 금융가와 미국 금융가의 한인 전문가들의 차이점이라면 아무래도 한인 타운과 한인들 간의 네트워크의 차이가 눈에 띈다. 싱가포르에서는 한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뉴욕은 LA와 더불어 가장 큰 한인 타운이 존재한다. 또한 대규모 교회에 다양한 종류의 한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뉴욕이라는 도시가 뉴저지와 코네티컷 등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도시인 반면 싱가포르는 공간적으로 보다 좁은 활동 반경을 가진다. 싱가포르의 한인 전문가들의 삶을 통해서 평자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는 일은 평자에게 매우 큰 즐거움이었다.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이 사회를 '조용하고 치열한 사회'라고 특징 짓는다. 한인 타운이 없는 한인사회로서 싱가포르 이민사회는 강력한 구심점이 없는 분절된 사회다. 초기 싱가포르에 정착한 한인들은 생존과 정착에 온 에너지를 쏟아야했기에 조직을 만들거나 네트워크의 확장을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이민사회가 다원화되고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더 많이 진출하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인 사회는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성장했다. 한인 타운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싱가포르의 도시정책과 한인들의 직업적 구성이 영향을 미쳤다.

한인들이 느끼는 싱가포르 사회는 투명하고 치열하며 자본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통하는 사회다. 국가와 기업의 청렴도가 높기로 명성이 자자한 싱가포르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반면 지나치게 높은 주택과 자동차 가격은 한인들의 생활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소다. 현대자동차 중형 모델이 1억 원에 가깝다는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중산층 생활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졸면 죽는다!"라는 한인들의 고백은

싱가포르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112쪽).

이 책 5장에서 보여주는 싱가포르 한인 2세대 자녀의 교육과 정체성은 다른 교육 인류학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매우 흥미로운 점들을 제시한다. 싱가포르 한인들의 자녀는 싱가포르 현지 대학, 한국 대학, 미국을 비롯한 서구 대학이라는 크게 3가지 선택지를 가진다. 이는 또한 계급과 연관된 교육 전략으로 가령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은 자녀들을 미국 대학으로 진학시킨다. 같은 가족일지라도 자녀가 여러 명 있는 집은 각기 다른 국가에서 대학 교육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들로서 동남아 국가에서 자란 한인 세대들이 겪는 트랜스내셔널 상황과도 비슷하다. 교육이 글로벌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 이민 자녀들은 다양한 교육 전략들을 구사하는데 이는 앞으로의 연구를 열어주는 중요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

김지훈 교수의 『싱가포르 한인사회』는 무수히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사례들로 아로새겨진 역작이다. 이 책은 싱가포르 연구뿐만 아니라 동남아 연구와 이민 연구의 필수통과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이 될 것이다. '이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는 단순한 인구의 이동이 아니라 직업, 교육, 정체성, 공동체, 젠더가 상호 교차하는 복잡다단한 영역임을 이 역작은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한국이 여러모로 모델로 여기는 도시국가이기에 이 책이 보여주는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풍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 25년에 걸친 김지훈 교수의 역작은 평자로 하여금 다시금 연구의 열정을 불러일으킨 책이자 트랜스내셔널 연구자로서의 낭만을 느끼게 해 준 책이었다. 25년 역경의 결과물에 어찌 격정적인 감정과 감미로운 추억이 깃들지 않겠는가. 이 책을 읽는 동안 평자는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싱가포르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떠올랐다. 『싱가

포르 한인사회』를 다 읽은 후 잠시 상념에 빠진다. 싱가포르의 눈부신 태양과 태평양이 눈앞에 선하다.